

닭고기 등급판정 직무교육 실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3월중에 닭고기 등급판정 체계 개편에 따라 등급판정사의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2.26~28일과 3.8~9일에 걸쳐 본부와 농협북우촌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등급판정 메뉴얼을 작성하여 현장적용사례로 견도해 보고, 또한 이론 및 정신교육과 등급판정 적용방법을 다면하였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3월중에 닭고기 등급판정 체계 개편에 따라 등급판정사의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2.26~28일과 3.8~9일에 걸쳐 본부와 농협북우촌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계란등급판정시행집하장신규지정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알짜란', '푸른아침' 등 브랜드란을 생산하는 경기도이천시소재(주)형계원(대표 김주홍)을 지난 3월 5일부터 계란 등급판정 신규업체로 지정했다. (주)형계원은 일 평균 155천개의 계란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6만개 이상을 등급판정하여 시장에 유통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 15개의 계란등급판정시행 집하장은 16개로 늘어났으며, 1일 평균 약 100만개의 계란을 등급판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집행투명성실천결의대회및부패방지 교육실시

임직원의 투명한 예산집행 실천의지를 제고하여 부식적인 예산집행을 근절하고 부패방지 교육 등을 통한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22일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본부와 서울·경기지도 등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을 주제로 한 기관장 특강과 국가경쟁위원회와 시청각 교재를 활용한 부패방지 동영상교육 등이 이뤄졌다.

신규직원채용및 직종변경시험실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2월 15일 신규직원 채용 및 직종변경 시험(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을 실시하였다. 쇠고기이력체 시범사업 확대 및 기능직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에서 신규채용 응시자 30명, 직종변경 응시자 6명의 지원서를 받아 최종 신규직원 3명, 직종변경자 1명을 선발하였다. 신규직원 3명을 3월 1일부터 임용하여 3월 2일에서 7일까지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이해, 신입사원의 기본 자세 등 직장인으로서 기본 적인 소양교육을 마친 후 현장으로 배치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7년 4월1일,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시범사업사육 단계착수에따른 전산입력요령 교육실시

2007년 신규로 참여대상에 대한 사육단계 착수는 2007.4월부터 실시하게 되며 참여대상 지자체에서는 참여농가 등록 및 미부착우에 대한 귀표장착, 기준 소 신고, 출생신고, 이동(전·출입, 폐사신고)사항등을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전산망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2007.3.22~29일(2회) 지방사업 참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육단계 전산시스템 입력요령 등을 실시한다. 2007년에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 참여대상으로는 광역도 1개소(경기도 전체, 육우브랜드 2개소)와 충청도(계천시, 경원군,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중남도(천안시, 홍성군, 논산시), 전북도(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완주군, 익산시), 전남도(나주시, 무안군, 임영군, 담양군, 강진군), 경북도(의성군), 경남도(진주시, 의령군, 거창군), 제주시 등 과거 23개 브랜드 및 지자체에서 650천두 규모가 참여하게 된다.

